

10. 부윤공파(府尹公派)

우적 禹績, 10세, 부윤공파 중시조. 5세 계룡의 현손(玄孫), 의주부윤(義州府尹) 1454년(단종端宗 2년)에 문과(文科) 급제, 가선대부(嘉善大夫), 안동부사(安東府使)를 거쳐 1482년(성종成宗13년)에 의주부윤(義州府尹)을 역임한 것으로 족보에 기록되어있다.

1세	2세	3세	4세	5세	6세	7세	8세	9세	10세	11세	12세
玄覃胤 현담윤 大將軍門下侍郎平章事 문하시랑평장사 延山君연산군 諡 景憲公경헌공 고려의종, 명종대 (1170-90년대)	德秀 덕수 상서공 兵部尙書 병부상서 星山府院君 성산부원군 고려명종대 1215년 후	元烈 원렬 太僕尹 태복윤 고려 충렬왕 대	敬興 경여 典客令 전객령	嶽(금) 左贊成 (좌찬성)	1 致龍(치룡) 都僉議寺事 도첨의사사	星州牧使派성주목사공파/南海縣令派남해현령공파/(全州)判官公판관공파/進士公派진사공파/司評公派사평공파/判尹公派판윤공파/昭威將軍公派소위장군공파					
					2 繼龍(계룡) 令同正 영동정	浩明(호명) 彰信校尉 (창신교위)	環(환) 郎將(낭장) 세종 23년 1441년생	仁후인형 主簿주부 세조 12년 1466년생	壽수 訓練僉正 훈련첨정	僉正公派첨정공파	
								義良(의량)	義良公派의량공파		
								仁良(인량)	禹績(우적) 義州府尹 성종대	德덕	升聞 승문
								尙文(상문)	啓山(계산) 保功將軍	保功將軍公派보공장군공파	
						珍(진) 進士진사	明遠(명원) 兵馬節度使 세종대				
					瑞龍(서룡) 左丞宣 좌승선	左承宣公派좌승선공파(서룡공)					

12세	13세	14세	15세	16세	17세	18세	19세	20세	21세	22세	23세	24세	25세	26세	27세	28세	29세
升聞 승문	勳 훈	壽永 수영	訥 눌	仁秀 인수	1 太福 태복	1 得南 득남	1 孝寬 효관	文淑 문숙	殷道 은도	斗壽 두수	貞泰 정태	宗奭 종석	在氏 재씨	命信 명신	圭相 규상	正卿(병근炳瑾) 독립운동가	華均 화균
							2 孝信 효신	1 殷淑 은숙	2 俊道 준도	2 世光 세광	1 命宅 명택	1 宗文 종문	3 錫筠 석균	1 益河 익하	4 乙吉 을길	1 炳貞 병정	2 龍秀 용수
													6 錫殷 석은	익철益哲 독립운동가	중화鍾華 판사	翰成 한성	3 正秀 정수

정경 正卿, 28세. 독립운동가, 대한통의부 법무위원장, 조선민족전선연맹 주석 일제강점기 대한통의부 법무위원장, 정의부 중앙위원장, 국민부 법무위원장 민족해방동맹 주석 등을 역임한 독립운동가. 호는 하죽(河竹, 이칭 : 병근(炳瑾, 족보 등재 이름). 평안북도 박천에서 1886년(고종 23) 출생하셨다.

1919년 3·1운동 후 만주 동삼성(東三省)으로 망명하여 한족회(韓族會)와 서로군정서(西路軍政署) 등에 가담하여 항일활동을 전개하였다. 1920년에는 광한단(光韓團)을 조직하고 위원장에 선임되어 무기를 구입하는 한편, 동지 50여 명을 규합하여, 1922년 통의부(統義府)가 발족될 때까지 항일무장투쟁을 지속적으로 이끌어갔다.

1922년 8월 한족회·광복군총영·대한독립단(大韓獨立團)·서로군정서·광한단·대한청년단연합회(大韓靑年團聯合會) 등 독립운동단체 대표가 봉천성 환인현(奉天省桓仁縣)에 모여 출범시킨 대한통의부의 법무위원장에 선임되어 활약하였다. 1924년 11월 길림(吉林)에서 양기탁(梁起鐸)·김동삼(金東三)·오동진(吳東振)·지청천(池青天) 등과 함께 정의부(正義府)를 조직하여 중앙위원회에 선임되었으며, 그 뒤 중앙위원장을 역임하였다.

1926년 고려혁명당(高麗革命黨) 조직에 참여하여 중앙위원에 선임되었다. 그 뒤 정의부·신민부(新民府)·육군주만참의부(陸軍駐滿參議府) 등의 3부 통합이 실패하자, 1929년 4월 신안둔(新安屯)에서 국민부(國民府)가 결성될 때 법무위원장에 선임되었다.

그러나 1930년 공산주의자로 전향하여 국민부를 전복시키려고 하였으나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자 충칭(重慶)으로 탈출하였다. 1936년 김성숙(金星淑) 등과 조선민족해방운동자동맹을 조직하였고 1937년 조선민족전선연맹을 창립하고 주석에 취임했다.

그 뒤 치장(綦江)에서 열린 회의에서 산재한 여러 개의 항일독립 운동단체를 이동녕(李東寧)의 지시로 대한민국 임시정부 산하에 집결시키는 데 합의하여 통합을 성공적으로 이끌어냈다. 1941년에 돌아가셨다. 1992년 건국훈장 독립장이 추서되었다.



內外를連絡하여 高麗黨組織

련도고려한의원과형평사원
해삼위공산당과연락을취해
新義州署員活動內容

신의주(新義州)경찰서모근(茅里警察署)으로부터
根(根)정보와 리(李)정사가가정정 조모(趙某)의수명이
여출장하여와서 중문서 고등(高等)의수명을살상하여모
의무원을어디 크게할등을하여
모모등 서사랑을잡고하여 가지
고리형사는이신일방으로그들
을신의주모공송하며갈모양이
라함은작보한바아니와 리형사
는그남아출인(仁)으로
다시 모를잡고한것으로 처음
비등을변경하여 친의인원에서
정거(正)사람까지 모다비명
을호송하여 리형사만은재작이십
말아출자로 신의주를향하여
나가고 모은정부모양의연회
정성의남이있서 다라단 판가자
들의수색에게속한하는모양
인데아주정거한지못한사람을
도모려한이라하나 그들은의의
교묘히 중죄을송가고 잇슴으로
도저히 정거할정기 업시되야
모은정부모도한일업사 이신일
원방으로는신의주로 도라가리
라한다 그내유은의연회 비일에
부처나가장 중신할만한 곳에서
람문한바에 의하면 친의정거된
습조신안에는공산당원들의존

組織前이라고

별항사건은 재작년신의출생신
의주에서 처음 공산당사건을
발각하고 그당원들을정거하는
그당시의일과 방북한데 재작년
심일설과 작년특설이때 공산당
사건으로 고려공산청년회(高麗靑
共靑年會)와 조선공산당(朝
鮮共産黨)의관계자들이 전부검
습조신안에는공산당원들의존

▲ 고려혁명당 관련 기사

참고문헌

『대한민국독립유공인물록』(국가보훈처, 1997)/『한민족광복투쟁사』(이현희, 정음문화사, 1990)/『재만한인독립운동사연구』(박영석, 일조각, 1988)/『한민족독립운동사연구』(박영석, 일조각, 1982)/『독립운동사연구』(박성수, 창작과비평사, 1980)/『독립운동사』5(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1973)/『한국공산주의운동사』1~5(김준엽·김창순 편, 고려대학교아세아문제연구소, 1966~1970)

병정 炳貞, 28세. 박천종친회장(博川宗親會長)역임, 대중회지도위원,

호 송학(松鶴), 도호는 화암(道號 化菴), 1927년 정묘(丁卯)생 시천교 입교신앙(侍天敎 入敎 信仰), 공산당 반대투쟁, 6.25사변 때 일사후퇴로 피난, 남한군 헌병대 복무, 천도교 복교(天道敎 復敎), 도훈선도사(道訓宣道師), 대동보편찬수단위원(大同譜編纂收單委員), 박천종친회장(博川宗親會長), 박천장학회감사(博川獎學會監事), 동남면민회장(東南面民會長), 천도교 종학 대학원 수료(天道敎宗學大學院), 족보 편찬 수단(族譜編纂收單)의 공이 큼.

용수 龍秀, 29세.

병정의 차남, 자 용균(龍均), 도호 용암(龍菴), 1963년 계묘(癸卯)생, 동국대학교졸업, 조흥은행과장(朝興銀行課長)

정수 正秀, 29세.

병정의 3남, 자 정균(正均) 호 정암(正菴), 1967년 정미(丁未)생, 대한항공기술대졸(大韓航空技術大졸), 대한항공 정비과장

익철 益哲, 26세.

독립운동가, 조선혁명당 책임비서, 상해임시정부 군사학편수위원회위원. 일제강점기 때, 통의부 위원장, 조선혁명당 중앙책임비서, 상해임시정부 군사학편수위원회위원 등을 역임한 독립운동가. 1890년(고종 27) 출생하셨다. 호는 묵관(默觀). 평안북도 박천 출신이다.

1919년 3·1운동에 참가한 후 만주로 망명, 재만동포의 자치기관이며 독립운동단체인 한족회(韓族會)에 가입하였다. 1920년 동지들과 관전현(寬甸縣) 향호구(香沔溝)에서 광한단(光韓團)을 조직하고, 일제의 주구기관 파괴와 밀정 숙청에 진력하였다. 1921년 일본경찰에 붙잡혀 3년간 복역한 뒤 다시 만주로 탈출하였다.

1924년 통의부(統義府)에 참여하여 위원장에 임명되었고, 1926년 길림에서 고려혁명당(高麗革命黨)을 결성하였다. 1927년 여러 단체를 통합하여 국민부(國民府)를 조직하고, 중앙집행 위원장에 추대되었다.

1929년 국민부 내에 조선혁명당(朝鮮革命黨)을 조직하였다. 그러나 1930년 당간부들이 일본군에 의해 사살 또는 체포되는 불운이 겹치자, 당조직을 개선하고 중앙책임비서가 되어 당업무를 총괄하며 항일투쟁을 계속하였다.

1931년 외교교섭차 봉천(奉天)에 갔다가 일본경찰에 붙잡혀 신의주지방법원에서 7년형을 선고받았다. 신의주형무소에서 복역중 병보석되자 일본경찰의 감시를 피하여 재차 만주로 탈출하는 데 성공하였다.

1937년 일제가 중일전쟁을 도발하고 본격적인 대륙침략 전쟁을 일으키자, 한국독립당·한국국민당·조선혁명당 등의 3개 단체와 하와이·멕시코 등지에서 조직된 6개 한인단체와 연관하여 한국광복진선(韓國光復陣線)을 결성, 항일전선을 재정비하였다.

1938년 일본군의 중국 침략으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충칭[重慶]으로 이전하자, 한국광복진선도 충칭으로 옮겨 임시정부를 후원하며 항일투쟁을 계속하였다. 같은 해 임시정부 군무부 산하에 군사학편수위원회(軍事學編修委員會) 위원으로 임명되어 조성환(曹成煥)·유동열(柳東烈)·지청천(池青天)·김학규(金學奎) 등과 함께 활동하였다.

그리고 이해 5월 창사[長沙]에서 김구(金九)·지청천·유동열 등과 회합하고 있을 때, 전 조선혁명당 간부로 일본경찰과 내통하고 있던 이운환(李雲煥)에게 저격당하여 현장에서 돌아가셨다. 이 사건이 독립운동사상 가장 치욕적인 창사사변[長沙事變]이다. 임시정부에서는 수십년간 조국 광복을 위해 헌신 노력한 업적을 찬양하여 국장으로 장례식을 거행하였다. 1962년 건국훈장 독립장이 추서되었다.





현익철 선생 장례식 사진



서울 현충원의 현익철 묘소

참고문헌 : 『대한민국독립유공인물록』(국가보훈처, 1997)/『독립유공자공훈록』 4(국가보훈처, 1987)/『대한민국독립운동공훈사』(김후경·신재홍, 한국민족운동연구소, 1971)/『한국독립운동사』 5(국사편찬위원회, 1969)

영식 英植, 28세, 1939년생, 동일기업 대표, 대종회 지도위원

태술 泰述, 29세, 1928년생, 울릉종친회장, 대종회 이사

동호 東鎬, 29세, 1959년생, 박천종친회장, 대종회 이사

대진 大眞, 29세, 1967년생, 성균관대 예술대영상학과, 대종회 이사

남식 南植, 30세, 1935년생, 대종회 이사

동열 東烈, 32세, 1959년생, 대종회 이사

상열 相烈, 35세, 1941년생, 대종회 이사

병권 炳權(淸炳), 36세, 1950년생, 의정부종친회장, 대종회 이사

청호 淸浩, 36세, 1957년생, 대종회 이사

청근 淸根, 36세, 1958년생, 대종회 이사

재헌 在憲, 36세, 1963년생, 연세안과의원장, 대종회 이사